

민선 7기 고성군 4천600억 규모 공모사업 선정

2018년 하반기 662억
2019년 2천289억
2020년 1천127억 규모
2021년 상반기 535억
하반기 어촌뉴딜 300
도시재생 공모 준비

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민선 7기 출범 이후 2018년 하반기 27건 662억, 2019년 48건 2천289억, 2020년 52건 1천127억, 2021년 6월까지 30건 535억 등 총 157건 4천613억 규모로 선정됐다.
이는 민선 7기 4년간 120건 825억에 비해 사업비 규모가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2017년 5천26억이던 예산 규모가 2020년 6천684억으로 역대 최고규모를 경신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이처럼 고성군이 많은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이유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고성군의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고 군민 행복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한 결과로 평가된다.
또한 공모사업 탈락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다시 공모에 도전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예로 190억 원 규모의 고성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3차례의 도전 끝에 선정됐고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송학동 고분군 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제2도전 끝에 선정됐다.
백두원 군수는 "그동안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여러 사업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고 이로 인해 고성군이 변화되고 모습을 군민들이 느끼고 계신 것 같다"며 "지금까지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혁신과 적극적인 행정 추진으로 군민이 행복한 고성군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성군의 신성장 동력 확보와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이 될 100억 이상 주요 공모사업은 △우인 항공기 통합시험 훈련기반 구축

사업(187억 원) △아촌뉴딜 300 사업(67억 지구, 총 500억 원) △스마트 축산 ICT 시범사업(641억 원) △고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190억 원) 등이며,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 밖에 △구 공설운동장 생활 SOC 복합화 사업 △구공립어린이집 신축 △장애인 전용체육시설인 반다미 문화체육센터 등 교육·복지 분야의 각종 사업도 이미 완료가 됐거나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성군은 올해 6월 현재 총 30개 사업, 총 535억 원 규모의 공모사업이 이미 선정되었으나, 하반기에도 어촌뉴딜 300사업 400억 원, 송학지구 도시재생 사업 62억 원 등 현안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황수경 기자

알림

고성신문 창간 30주년 추천 공고

제16회 고성신문대상

'봉사대상' '자랑스러운 농어업인상' '모범공직자상' '문화체육인상' '고성경제인상' '고성애향인상' 후보자를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부문(6개 부문)

- 봉사대상: 지역사회봉사, 효행에 앞장서 주위의 귀감이 된 자
 - 자랑스러운 농어업인상: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개발, 수산진흥, 원예 화훼 확산 업업 진흥 등에 공헌한 농어업인
 - 모범공직자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직에서 청렴 정직 봉사의 자세로 전체 공직자의 귀감이 되어 공직자의 사표(師表)로써 공적을 후세에도 남길 수 있는 공직자
 - 문화체육인상: 문화 예술 체육발전에 앞장서고 이 분야에서 뛰어난 기량을 겸비해 고성인의 자긍심을 높인 자
 - 고성경제인상: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창조적 정신으로 지역경제발전과 향토기업 육성에 앞장선 선도기업
 - 고성애향인상: 고성 출신 재외향우 중 고향 고성에 대한 남다른 애함심으로 고성발전에 기여한 자
- ※각 부문별 1인(1사)으로 한다.

2. 추천자격 요건

- 본직직을 고성군에 두고 있거나 5년 이상 고성군에 거주한 자 또는 기업
- 당해 연도 공적사항을 원칙으로 하되 과거 공적이 현저한 자
- 고성신문대상을 기 수상한 자는 제외

3. 후보자 추천

- 추천서 접수
 - 기한: 2021년 7월 10일까지(기한 내 추천이 없을 시 해당없는 것으로 간주)
 - 접수처 및 추천서 배부: 고성신문(055-674-8377)
- 제출서류
 - 추천서, 공적조서, 이력서, 주민등록초본 각 1통
 - 공적증 증명할 수 있는 수기, 자서, 인신확인서 등 1통
 - 제출처: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23-12, 301호(JB빌딩) 우편번호: 52943(마감 기한 도착분에 한함)
 - 이메일: gosnews@hanmail.net

4~6월분 구독료 지료가 발송되었습니다.

고성신문 2021년 4~6월분 구독료 지료가 발송되었습니다. 이번엔 발송된 구독료 지료는 3개월분 1인8천 원씩 리얼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다수 군민들께서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신문 역시 각종 행사 취소 등으로 광고수주가 되지 않아 인세비, 인건비, 우편료 등 신문 제작에 필요한 실제 경비마저 지출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함께 힘을 모아 이 난관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군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무한한 감동을 받습니다. 고성신문 독자님!
장기간 구독료를 납부하지 않은 독자님들께서는 이번 기회에 지역신문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구독료 납부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합니다.
독자님들께서 납부하시는 구독료는 물론이요 지역신문의 든든한 지양분이 되어 더욱 건강한 신문물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호국보훈의 달 고성군 국가유공자 최고 예우 '눈길'

국가를 위한 헌신 잊지 않고
보답하는 보훈 행정 펼쳐
보훈 명예수당 지급대상
금액 확대 보훈회관 리모델링



호국보훈의 달, 고성군이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에 대해 전국 최고 수준의 예우를 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고성군은 민선 7기 백두원 군수가 취임하면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군정 핵심 가치로 삼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우선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명예수당을 사방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까지 확대하고 지급금액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보훈병원을 확대 지정하여 의료기관 이용의 편의를 도모했다.
또 노후화된 보훈회관을 병남방 시스템 교체 등 리모델링

과 민간단체와도 협력해 안마의자, 마스크, 간식 등을 지원하고 있다.
행정에서도 부군수와 국장이 부임하면 최우선으로 보훈단체를 찾아 인사를 드리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등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드높이고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앞장서고 있다.
고성군은 지난 6월 1일 나라사랑 큰나무기를 계약한 데 이어 현충일 추념식에서는 보훈가족을 운영해 고령층의 보훈가족을 배려하고 백두원 군수가 참석자에게 직접 꽃과 배지를 달

아 드리는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무한한 예우와 존경을 표시했다.
이러한 시작을 추진한 결과, 지난 3월 9일 김경수 대한민국전통문화유류회장이 직접 고성군을 방문해 백두원 군수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도 했다.
백 군수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보훈가족의 예우에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행정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 보훈 1번지 경남 고성군'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연희 기자

엑스포조직위, 계약직 직원 채용

(재)경남고성공통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는 10월 1일부터 개최되는 2021년경남고성공통세계엑스포의 성공과 재단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계약직 공개채용을 실시한다.

이번 계약직 채용인원은 일반분야 3명과 행사분야 2명 등 총 5명으로서, 2021년공통세계엑스포의 화상운영 및 사업업무 그리고 행사업무에 담당하게 되며, 자세한 응시 조건은 공통엑스포 및 고성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류접수는 6월 28일(월)부터 7월 2일(금)까지이며 공통엑스포 조직위 사무국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등기)제출해야 한다.

서류접수 이후에는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업무추진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발하며 최종합격자는 임용일(2021년 7월 예정)부터 근무하게 된다.
(재)경남고성공통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민간 전문가 채용을 통하여 부족했던 전문성을 더 높이고 민간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군민과 엑스포를 찾는 관람객들의 기대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통엑스포로 만들기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황수경 기자

30주년 고성신문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농어민과 함께 농어촌을 위해! 글로벌 공기업

"농지은행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고성군 고성읍 기월2길 51 T. 670-7014~8 F. 672-8767

- 농지매입비축사업**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인 농지를 공사가 감정평가 가격(시가)로 매입합니다.
- 경명회생지원사업** 부채 농가의 농지를 공사가 매입하여 경제력을 회복한 뒤 부채를 상환하여 다시 농지를 가져갑니다.
- 농지연금사업** 65세 이상 농업인은 농지를 담보로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를 하면서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농촌정착과 농업경영을 희망하는 젊은세대(만39세 이하)에게 농지은행이 농지를 지원합니다.
- 농지규모화사업** 전업농, 일반농, 청년창업농, 후계농, 귀농, 농지매매사업과 농지장기임대자를 지원합니다.
※ 과수 농업인에게는 과원규모 확대 지원
- 농지임대주택사업** 개인간 임대차가 금지된 1996년 이후 구입한 농지를 공사에서 임대주택 계약을 시행합니다.

KF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 지사장 **김재홍**